

고등어길

와카사와 옛 수도였던 교토는 고등어길이라고 불리는 길로 이어져 있었습니다. 그 당시 사람들은 이 길을 통해 오바마에서 생선을 담은 바구니를 운반했습니다. 고등어길에는 여러 개의 루트가 있습니다. 최단 루트는 약 72km로 에도시대(1603년-1867년)에는 도보로 이들이 걸었다고 합니다. 같은 시기의 사료에 따르면 고등어를 비롯한 와카사산 해산물은 '와카사모노' 라고 불리며, 수 세기 동안 교토의 시장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왔다고 합니다.